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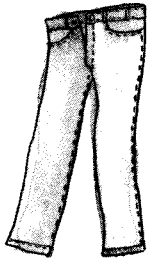
■ 世界發明史에 記錄된 ■

名發明品 名發明人

그것과 그들은 누구인가

청바지

“ 푸른색의 잘 닳지 않는
튼튼한 바지.
그 청바지는
광부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까지
그 실용성이 인정되어
날개 돋힌 듯이 팔렸다.”



1930년경 미국의 서부지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많은 양의 황금이 나왔다. 그 황금을 캐러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는 갑자기 봄비는 도시가 되었다.

주택과 학교, 교회들은 아무리 지어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 중에서도 주택문제가 가장 두통거리여서 미처 집을 짓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천막을 치고 사는 바람에 어떤 지역은 그말로 천막촌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비대해가는 샌프란시스코의 교외에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금을 캐 궁리는 하지않고 새로운 돈벌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천막이야. 저 천막이야말로 내게 황금을 가져다줄거야.>

스트라우스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주민에게 천막을 판다면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실리적인 생각을 한 것이다.

그는 곧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천막지를 짜는 공장을 세웠다. 뿐만아니라, 그 공장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튼튼하고도 아름다운 천막지를 만들어냈다.

스트라우스가 짜내는 천막지는 상당한 인기로 팔려나가며 천막지 상사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군부대에 텐트용으로 천막지를 납품하겠다는 그 상인이 찾아왔다. 그 상인은 엄청난 양의 천막지를 주문했다. 스트라우스의 공장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이었다.

<만약, 이 일만 잘 된다면...>

스트라우스는 황금방석위에 올라앉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곧 약간의 계약금을 받고 그 상인과 계약을 맺었다.

스트라우스는 다음날부터 일반 텐트 제조업자의 주문은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군납용 천막지를 짜려고 많은 빛도 내고 외상도 해서 산더미같은 실을 사들였다.

<힘이 들긴하겠지만, 해보는거야. 빛이야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그때쯤이면 난 엄청난 부자가 될텐데 뭐.>

스트라우스는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직공들과 함께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천막지를 찢다.

그러던 어느날, 천막지를 주문한 납품업자가 스트라우스를 찾아왔다. 스트라우스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는 창고로 데려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짠 푸른색의 천막지를 보여주었다.

《스트라우스씨!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부대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견본품으로 천막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군납업자는 대단히 만족스런 표정으로 얘기했지만, 스트라우스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불합격으로 결정되면... 설마, 아닐거야〉

스트라우스는 군납업자가 견본품을 가지고 떠난 후에도 그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직 회소식 만을 기다렸다.

어느 아침 드디어 군납업자가 스트라우스를 찾아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입니까?》

스트라우스는 조바심을 내며 군납업자에게 다가갔다.

《아직, 저도 모릅니다. 조금 후면 부대에서 직접 사람이 통지서를 가져올 겁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설마 불합격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다려봅시다.》

군납업자는 비교적 여유있는 태도로 스트라우스를 진정시키려 했다.

두 세 시간이 지났을까. 스트라우스에게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만 느껴졌다.

잠시 후, 부대로부터 통지서를 가지고 사람이 도착했다. 군납업자는 통지서를 받아 들고는 봉투를 뜯었다. 여유있는 표정을 짓던 그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졌다.

스트라우스는 납품업자의 손에 쥐여있던 통지서를 뺏아 읽었다. 불합격이었다. 염색이 주문한 것과 틀리다는 것이었다.

스트라우스는 아무 말없이 담배를 피워물었

다. 연거푸 몇대의 담배만 피던 스트라우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대체 저 많은 양의 푸른 천막지를 어떻게 한다지? 일반인에게 팔려면 죽히 몇년은 팔아야할텐데, 그 동안 빚진 것은 어떡하지? 이제 난 끝장이야.〉

스트라우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각나자 더욱 암담해졌다. 그러나 암담한 것은 스트라우스 뿐만 아니었다. 군납업자도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스트라우스에게 선착금으로 주는 바람에 그들은 모두 알거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걱정마십시오, 무슨 수가 있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실의에 빠져있는 군납업자를 위로하며 일반인들에게 팔아보자고 권했다. 그러나, 군납업자는 시큰둥했다.

《아니, 저 많은 천막지를 언제 판단말이요. 게다가 우린 지금 빚더미 위에 앉아있단 말이요.》

시간이 흐르자 빚독촉도 심해지고 직공들도 월급을 안 준다고 야단이었다. 스트라우스는 도저히 공장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와 거리를 하루 종일 쏘다녔다. 어느 골목을 지나가다 구수한 냄새가 스트라우스를 멈추게 했다. 스트라우스는 자신이 하루종일 굶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가 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 곳엔 광부 한 명이 자신의 헤진 바지를 꿰매고 있었다.

〈쫄쫄. 천이 금방 닳았군. 우리 천막지는 튼튼해서 잘 닳지 않는데...그래! 바로 그거야.〉

스트라우스는 천막지를 광부들의 작업복으로 알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배고픔도 잊은 채 공장 공장으로 달려갔다. 얼마 후, 스트라우스의 천막지는 바지로 만들어져 시장에 나왔다.

푸른색의 잘 닳지 않는 튼튼한 바지. 그 청바지는 광부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까지 그 실용성이 인정되어 날개 돌힌 듯이 팔렸다.

스트라우스는 이 청바지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벌며 그야말로 황금방석 위에 앉게 되었다.

〈♣〉

〈尹榮珣 記〉